



설날 가정 예배



인도자(가정의 가장 혹은 신앙의 세대주)

목상기도 인도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50:23)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설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 함께 설날 감사예배 드릴 때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15장 다 같이

1.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2.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참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 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3.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4.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대표기도 가족중에서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3:9 다 같이

말씀선포 “복을 유업으로 받는 자” 설 교 자
(설교 원고는 뒷면에)

기 도 설 교 자

찬 송 384장 다 같이

- (1)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 (2)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같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 (3)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고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기도문 다 같이

2025년 1월 29일

설날 가정 예배



설날 명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준비

1. 예배상을 준비하고 그 상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둘러 앉습니다.
음식은 차리지 않습니다.
2. 예배순서에 따라서 가족 중 신앙의 세대주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3. 예배순서 중 기도나 성경봉독을 가족들이 나누어 담당하면 좋습니다.
4. 예배 후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설날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 퍼센트나 진짜로 축복을 받겠습니까? 몇 명이나 승리하고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말로만 복 받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데서나 복을 구하지도 말고 받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 최악의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의 특권입니다.

본문에서는, A.D. 64년 로마 시에서 시작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섬기던 우상과 세상의 즐거움과 음란과 정욕과 모든 죄악을 버렸기 때문에, 친구들도 떠나고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욕을 먹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지 말고, 그들과 똑같이 욕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벧전3:9)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과 영생과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습니까? 본문 말씀을 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1.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 악행 / 선행

사람들은 자기에게 핍박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분쟁과 싸움과 다툼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결코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높이 들어서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2.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벧전3:9b)

누가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저주를 할지라도 똑같이 악한 말로 대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3.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벧전3:9c)

욕을 하는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을 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남을 축복할 때 자기도 잘 됩니다. 남을 저주하고 시기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가정, 직장, 사회, 어디를 가든지 항상 축복하며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다들 피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 앞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항상 복을 빌어 주어서, 복을 유업으로 받는 성도가 됩시다.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오히려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